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새해 금융 목표,
뱅크오브호프와 설계하세요!
FDIC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78호

Saturday, February 10, 2024 A

호건 전 MD 주지사, 연방상원 선거 출마 ‘전격 선언’

SPECIAL STORY

한인 유미 호건 여사를 아내로 둔 ‘한국 사위’라는 별칭으로 한인들에게 사랑 받았던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오는 11월 열리는 MD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9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2분 48초짜리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호건 전 주지사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총선에서 메릴랜드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릴랜드 주민 여러분, 저를 아시죠?”라고 시작한 영상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미국의 망가진 정치를 바로잡고 메릴랜드를 위해 싸우는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 위해 상원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호건 전 주지사는 “지난 8년간 우리는 미국을 분열시키는 해로운 정치

‘반트럼프’ 이미지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인기 연방상원의원 공석... 민주당 후보와 대결에서도 “승리 가능성”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연방출마 선언에 관한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다. [X 동영상 캡처]

가 우리 주 메릴랜드까지 분열시킬 필요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주지사로서 이룬 업적이며, 여러분을 위해 연방상원의원에서 봉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건 전 주지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재임했으며, 퇴임 이후에는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유력 인사’로 주요 언론의 각광을 받았다. 민주당 편향 주로 분류되는 메릴랜드 주에서 공화당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방

법으로, 호건 전 주지사는 ‘중도주의’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까닭에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안후보’ 중 하나로 거론됐으며, 2024년 대선에 나설 ‘제3지대’의 ‘대선후보군’으로도 분류됐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2년 전 메릴랜드 주 연방상원의원 직에 뜻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내키지는 않는다”고 발언 했다. 그래서 이번 그의 ‘상원 출마 선언’을 ‘깜짝 발표’라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전국공화당위원회(RNC) 측에서는 호건 전 주지사의 출마 선언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37년간 단 한차례도 배출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로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모았던 호건 전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면, 민주당 후보와 겨뤄도 승산 있다는 공화당 측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석이 된 메릴랜드 연방상원의원을 다시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오는 11월 열리며 이를 위한 후보 경선이 5월 14일 개최된다. 민주당 후보의 본선거 당선이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는 데이빗 트론 연방 하원의원(MD 6 선거구)을 비롯 6명이 후보로 나섰다. 공화당 후보로는 이날 입후보 서류 일체를 제출한 호건 전 주지사와 로빈 피커, 존 테이처트 등 5명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편, 유미 호건 전 주지사 부인의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 내 입지가 여전히 공고한 가운데, 호건 전 주지사의 공화당 경선 및 본선 캠페인을 위한 후원회 구성 및 모금운동 전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세용 기자



2024년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설 날이 밝았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는 설 연휴 동안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 개방한다. [연합뉴스]

제3지대 4개당 합쳤다 통합신당 이름은 ‘개혁신당’

제3지대의 4개 신당이 합당을 선언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며,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가 지도부를 맡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원욱·조승천 의원의 원칙과상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를 합당해 통합신당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많은 분들이 3지대 정당들의 통합을 염원하고 촉구하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서로 다른 배경의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데 대해 걱정도 하셨다”며 “이번 총선

에서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려와 걱정을 다 안고 대통합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양 기득권 정당의 오만과 독선, 위성정당을 서슴지 않고 추진하는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며 “3지대 통합신당에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총선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4개 세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이들은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합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2면 ‘개혁신당’으로 계속 최서인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들면지못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메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페어팩스 카지노법안추진, 내년으로 미뤄져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이 2025년 이후로 미뤄졌다.

버지니아 상원의회 예산재정위원회는 이 법안 부결과 동시에 2025년 재심의 의결법안을 13대2로 통과시켰다. 회의장에는 북버지니아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재심의 의결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북버지니아 지역 의원 중 상원 다수당 대표인 스콧 서로벨 의원(민주, 페어팩스), 제레미 맥파이크 의원(민주, 프린스 윌리엄) 등은 재심의 의결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제니퍼 보이스코 의원(민주, 페어팩스)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카지노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는 사실에 실망이 매우 크다”

상원 상임위원회 회의장 주민 반대 시위



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데이빗 마스텐 의원(민주, 페어팩스)은 이 법안을 상정하고 주도했다. 버지니아는 이미 5 곳(브리스톨, 포트머스, 노퍽, 덴빌, 피터스버그)에 카지노가 운영되거나 조만간 개장한 예정이다. 리치몬드에서는 2023년 주민투표가 부결됐으나 조만간 다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텐 의원은 “페어팩스 카운티에 카지노가 설치되면 연간 세수 1억5500만달러가 증가하고 메릴랜드와 웨스트버지니아로 원정가는 버지니아 주민을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내셔널 허버 카지노 고객의 절반 가까이 버지니아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버지니아 카지노 규제법률에

의하면, 시티 정부 관할 행정구역에만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다. 마스텐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카운티 정부 관할 행정구역도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버지니아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이 법안은 사실상 페어팩스 카운티 카지노 허용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에는 또한 실버라인 메트로 전철역과 0.5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델레스 공항과 벨트웨이 사이의 주상복합건물 프로젝트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레스톤 타운센터와 윌레-레스톤 이스트 전철역, 헌던 이노베이션 센터 전철역 뿐이다.

김옥채 기자

“사형제 부활하라”

VA 공화당 추진 형악범죄 예방 효과

버지니아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사형제 부활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팀 그리핀 하원의원(공화, 베드포드)이 상정한 법안에 의하면 1급 살인혐의 등에 대해 사법부의 사형판결과 행정부 사형집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버지니아는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이던 2021년 버지니아 역사 4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제를 폐지시켰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해 23개주가 의회 법률로, 6개주는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공화당은 사형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력이 있다. 2005년 주지사 선거 당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민주당 소속 톱 케인 후보(현 연방상원의원)가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자 공화당의 제리 킬고어 후보가 케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를 광고에 등장시키고 “아들표 히틀러도 사형시키지 않을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케인 후보는 주지사 시절 워싱턴 스나이퍼 사건의 주범인 존 알렌 무하마드 등 모두 11명의 사형을 허가했다.

김윤미 기자

한국정부,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한국 정부가 8·15 광복절을 기념해, 이 기간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8월 11~17일 광복절 주간동안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선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국의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한국 문화 체험시간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 측은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조국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주미대사관 이길현 보훈관은 “보훈과 관련한 동포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본국과의 빠른 소통으로 신속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초청 대상은 해외에서 태어난 후손으로 한국 방문 기회가 없었던 독립유공자 후손이다. 국가보훈부는 재외공관별로 총 4명 이내로 추천 받는다. 이에 따라 워싱턴 총영사관 관할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은 가계별로 2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도 그동안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광복 이후 사업, 교육 등으로 국외 이주한 후손, 75세 이상 고령자는 이번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지역 차보혐료 42% 올라 차량절도 사건 등 영향

워싱턴 지역 자동차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컨설팅기업 벵크레이트닷컴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올해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차량보험료가 전년 대비 42%(719달러) 올라 2430달러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26%보다는 높았으나 전국 평균 연간 보험료 2543달러보다는 적었다.

지역별로는 메릴랜드가 2493달러, 버지니아가 1975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헬스케어 서비스 비용과 인건비, 차량 부품 가격 등 각종 물가가 상승하고 차량수리 부품 공급난이 겹치면서 보험료가 뛰어올랐다고 밝혔다. 또한 펜데믹이 종료되면서 도로교통량이 늘어나고 난폭운전 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보험료 상승을 견인했다.

보험분석기관은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지역의 경우 카재킹 사건이 빈발

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보험료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작년 한 해 워싱턴DC에서는 모두 900건 이상의 카재킹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훼손당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실책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의 기본 커버리지인 컴프리헨시브 인슈어런스 커버리지로 보상하는 노-폴트 클레임이지만, 도난 사건이 빈발하는 지역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우박 피해에 대한 클레임이 해당 주택 소유주 보험료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주택 전반의 주택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과 동일한 이치다.

김옥채 기자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 하원 외교위 통과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HR 7152·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8일 연방하원 외교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외교위는 찬성 49, 반대 0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대비해 국무부가 미주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조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후 기회가 생길 때 연락과 상봉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과 제니퍼 웨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영 김

(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공동 지지자로 이름을 올린 초당적 법안이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 장관은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가족 명단을 관리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하면 명단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 정보도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에 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별도 배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연별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옹호자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2024년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 공고

새시대 선진향군 건설을 다짐하는 일념으로 뭉쳐진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개최합니다. 회원 분들과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2024년 2월 17일 (토) 오전 11시
- ▶ 장소: 6428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서울장로교회

재향군인회 가입 문의 대한민국 육, 해, 공군, 해병대 예비역의 향군 참여를 환영합니다. 연락처: 703-403-7080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회장 김인철

할리우드 셀럽 맛집은 한인 일식당

선셋스트립 위치한 '스시파크' 테일러 스위트·졸리 등 단골



LA의 한인 운영 일식당이 유명인들의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일 웨스트할리우드 선셋스트립 몰 2층에 위치한 '스시파크(Sushi Park)'가 유명인들이 자주 찾는 맛집이라고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스시파크의 피터 박 셰프이자 업주는 약 18년 전 가게를 차렸으며 메뉴판 없이 주방장이 메뉴를 선택해 내놓는 코스 요리인 오마카세 스타일로 운영하고 있다.

스시파크는 안젤리나 졸리부터 테일러 스위트, 비욘세, 저스틴 비버, 제니퍼 로렌스 등 할리우드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졌다.

매체는 음식점이 유명한 이유로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실제로 유명 음악 프로듀서 베니 블랑코는 "스시파크는 고급 음식을 제공하지만 차려입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다"며 "가게 안도 아담해 조용히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매체에서 전했다.

음식점 앞에는 '테이크아웃, 샐러드, 데리야키, 탬푸라, 캘리포니아

롤 없음, 전통 스시만 제공'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스시파크 관계자는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고객들에 퀄리티 있는 음식 제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가게가 협소하다 보니 단골손님 방문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입소문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음식점은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명품 브랜드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생로랑은 지난 2022년 파리에 위치한 브랜드 매장으로 세프를 초청해 약 10일 간의 '스시파크' 팝업을 오픈한 적이 있다. 또 2020년에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보테가베네타의 화보 배경으로 나온 바 있다. 같은 해 유명잡지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는 스시파크를 "입 안을 즐겁게 하는 스시"라고 평하며 LA의 최고 스시 레스토랑 18곳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음식점은 1인당 약 200~400달러로 평균 2시간에 걸쳐 요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진 기자

노래방 등 유흥업소 저작권료 폭탄

〈뉴욕·뉴저지〉

엘로힘 뉴욕재판 최종 판결
기계당 월 사용료 50달러선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카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이에 들리거나 음식 구매 시 밤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

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학부모에 피소 한인 교육감 유급 휴직, 당분간 업무 배제



싱크홀에 빠진 여성 무사히 구조

8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폰타나의 한 주택에서 한 여성이 싱크홀로 추락한 뒤 무사히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5분경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25피트 깊이의 싱크홀로 추락한 여성을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다. 싱크홀은 이전에 정화조로 사용된 구멍으로 이번엔 내린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붕괴한 것 같다고 소방당국이 밝혔다. 소방대원들이 여성을 구조하고 있다. [로이터]

지난해 11월 자녀 문제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샌디에이고 포웨이통합교육구의 한인 교육감 마리안 김 펠프스(사진)가 유급 휴직을 받고 당분간 업무에서 떠난다고 지난 7일 지역 언론 ABC 뉴스10이 보도했다.

이 뉴스는 교육구가 델노르테고교 소프트웨어팀 소속 여학생과 아버지가 제기한 소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외부 기관을 고용했으며, 펠프스 교육감은 유급 휴직을 받고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전했다.

펠프스 교육감은 작년 5월 열린 소프트볼 배킷에서 자신의 딸이 상을 받



을 때 다른 선수들에 비해 박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팀원들을 위협했다며 같은해 11월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소장에서 펠프스 교육감이 자신의 딸과 라이벌이던 원고가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막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배킷에서 펠프스는 행사가 끝난 후 자정이 되어가는 시간에 선수에게 문자를 보내고 30분 넘게 통화했으며 원고에게 졸업식장을 걸어가지 못할 것

이라고 적었다.

이러한 주장에 펠프스 교육감은 "학생에게 그렇게 협박한 적이 없다. 모든 비난은 완전히 거짓이고 조작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펠프스 교육감은 일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킷당일 밤 자정쯤 학생들에게 연락한 사실도 부인했다.

펠프스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웨스트민스터 교육구 사상 최초의 소수계 교육감으로 임명됐다. 오펜지카운티 레지스터지가 선정한 '2016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장연화 기자

애난데일 오픈



당신을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Patient First®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긴급 및 일반 진료/검사/치료 제공
주말 및 공휴일 포함 365일 오픈(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 예약없이 방문가능
- 각종 질병 및 부상 긴급 진료및 치료
- 주치의가 없는 환자에게 기본진료 제공
- 각종 주요 보험 환영- 보험 청구 접수대행
- 각종 혈액, 소변, 엑스레이검사등을 병원내에서 신속하게 실시, 처방약 병원내에서 구매 가능
- 응급실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
- 원격 진료

Annandale

7042A Little River Turnpike
(순환도로에서 동쪽으로 1.5 마일)
(703) 343-7125

“LAPD 첫 한인 국장, 더 도약하길”

한인들 “실력과 역량 보여줄 기회”
주류매체 “경찰국 위상 높아질 것”

150여년 LA경찰국(LAPD) 역사상 첫 한인 국장인 도미니크 최(사진) 임시국장의 부임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인들은 물론 아시아인-주류 사회에서도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한인 고위직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하는 한편, 차기국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6~9개월간의 다소 짧은 재임 기간이지만 아시아인으로서 그가 리더의 실력과 역량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임시국장이 이 기간 동안 한인 커뮤니티의 듣는 귀가 되어주고 한인사회와 LA시, 경찰국 간의 교류 활동의 기반을 닦아주기를 기대했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훌륭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국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한인으로서 자랑스럽다”며 “비록 이번에는 임시국장에 그치지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최대한의 역량을 보여주어 차차기 국장에 지원하길 바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 기간 동안 경찰국과 한인 커뮤니티 간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구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미국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경찰국 국장으로서 한인 커뮤니티만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한인들의 이슈에 충분히 귀 기울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한인회 차원에서도 곧 한인타운 내 이슈들을 최 임시국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정 올림픽경찰서후원회(OBA) 회장은 “첫 한인 국장이라 기쁘지만, 임시 국장이라 그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며 “하지만 이를 발판삼아 미래 국장으로서는 도약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LA한인상공회의소(KACCLA)는 오는 3월 15일 갈라&어워즈 나이트에 최 임시 국장을 초청해 그의 임명을 축하할 계획이다. 김봉현 KACCLA 회장은 “최 임시 국장과는 돈독한 관계를 맺어으며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타운 내 홈리스와 주택절도 문제 등이 심각하네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간 제한적이었던 일들을 본인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한인 리더로서의 실력을 보여주고 미래 국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주류 매체들도 최 임시국장의 부임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온라인 일간 매체 ‘후드라인(Hoodline)’은 “LA가 변화를 준비하는 동안 지역사회는 최 임시 국장을 기대하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그의 임명은 단순히 경비대(guard)의 교체가 아니라, LAPD가 존경받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심층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기아, 업그레이드 신형카니발 공개

하이브리드 트림도 출시
오는 여름부터 시판 예정



기아미국판매법인이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등이 업그레이드된 다목적차량(MPV) 신형 카니발(사진)을 공개했다.

2025년형 카니발은 기아의 ‘오픈트 유틸리티’ 디자인 컨셉이 적용된 2025년 쏠렌토 SUV와 같은 모던하고

볼드한 모습을 구현했다. 특히 기존의 287마력 3.5L V6 GDI 엔진 트림 이외에도 242마력 출력의 1.6L 터보 하이브리드 트림으로도 새롭게 출시된다. 하이브리드 트림은 토크가 271lb-ft로 엔진 트림보다 11lb-ft 더 높고 주행 성능과 연비를 개선하는 회생제동시스템, 코너링 응답성을 향상시키는 E-핸들링, 긴급 조향 시 차체를 제어하는 전자식 주행조향보조 장치 등이 장착된다. 신형 카니발은 올 여름부터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크레딧카드 부채 1인당 6360달러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크레딧카드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연체하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트랜스 유니온의 분기별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1명당 크레딧 빚은 평균 636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0% 증가한 것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연)과 트랜스 유니온은 모두 크레딧카드 연체율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연연은 지난해 지난해 크레딧카드 연체율은 50% 이상 급증했다. 90일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및 채무 불이행 건수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크레딧카드의 평균 연체 이자율은 20.74%다.뱅크레이트 수석 애널리스트

트인 테드 로스먼은 “20%의 연체 이자율과 크레딧카드 빚 6360달러를 매월 최소 납부액만 갚는다고 가정하면 전액 상환에 17년이상 걸리고 이자만 90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높은 이자율에도 소비자들은 다른 대출 상품보다 크레딧카드를 선호하고 있다. 트랜스 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2010만개 새로운 크레딧카드가 발급됐다. 신규 발급자가 대부분 이 밀레니얼 세대였으며 크레딧점수가 600점 이하인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자들이었다.

로스먼은 “크레딧카드 부채를 밸런스 트랜스퍼 크레딧카드로 이체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12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0% 이자를 제공해 카드 부채를 통합해 계획적으로 갚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시로 만든 로보콜은 불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로보콜이 금지된다.

CNN 등 주요매체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8일 선거 보안 위협 및 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AI 생성 딥페이크 로보콜을 불법화한다고 발표했다.

FCC는 이날 텔레마케팅 및 로보콜 관련 연방법에 따라 AI 딥페이크 로보콜을 ‘인공’으로 간주하는 로보콜 방지 규정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CC는 이번 조치로 AI 생성 음성을 사용하는 불법 로보콜 업체들을 추적



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로보콜 발신자는 AI 기술을 통해 생성되거나 조작된 인공 또는 사전녹음 음성을 사용할 경우 전화 발신 전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제된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기 로보콜은 기존의 불법 로보콜과 동일한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보콜 차단 서비스인 유메

일(YouMail)에 따르면 로보콜 건수는 2019년 약 585억 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지난해에는 550억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사기꾼들이 AI 생성 목소리를 사용한 로보콜로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갈취하고, 유명인을 모방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로보콜의 배후에 있는 사기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로보콜이 뉴햄프셔 유권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주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한 사건이 발생한 지 수주 만에 내려졌다. 박낙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약소음) 웨일리노래방
The Orchard Ln 40
300m
뉴타운홈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세요?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FUNDING GROUP, INC.
VA, MD, DC, NC, DE, TX, PA, WV, GA, SC, FL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OIGS,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License Numbers: DC MLB 1108695; MD 0620828; NC L161472; VA MC-5777; DE 030649-TX; PA 101075; WV ML-1108695; MB-1108695; GA 1108695; SC 11086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695
www.nmlsconsumeraccess.org

연준 위원들도 ‘신중한 금리인하’ 강조

파월이 동조하는 발언 이어져
리치먼드 총재 “인내심이 중요”

제품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장이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뒤 연준 구성원들이 연이어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매우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 정책변화의 실익을 따져보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바킨 총재는 지난달 3일 공개연설에서도 “연착륙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지난해 9월 연준 이사회 합류 후 첫 공개 발언에 나선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회도 이날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루

킹스연구소 행사에 참석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안정적으로 돌아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물가와 고용 2개 목표 중 물가에 집중하는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쿠글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진전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둔화세가 지속할 것이라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진전이 지

속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경제 데이터를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전날 연설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진전을 이룬다면 연준이 올해 중금리 인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해 파월 의장의 견해를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전날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개선된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지만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웹사이트에 5일 공개한 자신의 에세이에서 팬데믹 영향에 따른 중립 금리의 상승으로 연준이 금리인하 시작 전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평가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분석한 바 있다.

브리프

국채 거래헤지펀드 달러등록 의무

금융당국이 국채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국 국채를 거래하는 헤지펀드 등에 대해 ‘달러’(중개인) 등록을 의무화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 국채를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헤지펀드 등도 달러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최근 보도했다. 달러로 등록하면 포지션과 거래 활동에 대해 당국에 더 많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고객예금이나 신탁 자산이 아닌 자기자본·차입금으로 국채·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프롭트레이딩 업체 등에도 적용되며, 수십 개 업체가 달러로 등록하고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2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에서 이들 기업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SEC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몇 년간 전자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일별 국채 거래 활동의 절반가량은 달러처럼 움직이는 미달러 시장참여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연구 결과도 영향을 잇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하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글로벌 IB들 “금리인하 2분기부터”

투자은행 10곳 첫 만장일치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올해 2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글로벌 투자은행(IB) 의견이 일치한다고 한국은행이 8일 전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이하 한은)는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달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마지막 금리인상 이후 투자은행들의 금리인하 전망이 일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금리인하 시점에 관한 시장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으로 평가된다. 애초 전망은 2~4분기로 다양하게 분포해 있었다.

2곳이 4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들어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고조되면서 10곳 중 2곳이 1분기, 7곳이 2분기, 1곳이 3분기로 전망이 수정됐다. 4분기 전망은 사라졌다. 지난 FOMC 직후인 이달 초부터는 1분기와 3분기 전망도 사라지고 2분기만 남았다. 투자은행 10곳이 만장일치로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FOMC가 정책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지속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영향으로 보인다. 제품 파월 연준 의장도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3월을 금리인하 시점으로 선택할 정도의 확신 수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지표에 반영된 올해 말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치도 4.18%로, 한 달 전의 3.95%보다 높아졌다.

내년 부채이자 GDP 대비 3.1% 전망

예산처 “2차대전 수준 넘을 듯”
“지출 문제가 재정적자 원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순이자비용 비율이 내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의회 산하 재정분석기구인 회계예산처(CBO)는 7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 부채 순이자비용이 GDP 대비 3.1%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을 웃도는 등 1940년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이 비율은 이후로도 계속 올라가 2034년에는 3.9%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공공부채 부담은 2025년 GDP 대비 100%를 넘고 2034년에는 1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또 올해 1조6000억 달러 수준인 재정적자가 2031년 처음 2조



달러를 넘고 2034년 2조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적자가 10년간 1조 달러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5.6%에서 2034년 6.1%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대공황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그 수준을 넘긴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2007~2009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확산 시기뿐”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세입 문제가 아닌 지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요 석유업체들 작년 주주환원에 1138억불

전성기 때보다 76% 더 많아

세계 주요 석유 업체들이 지난해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을 위해 역대급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엑손 모빌, 셉브론, 쉘, 토탈에너지SE, BP 등 서방 5대 석유·가스업체들은 원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3년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1138억 달러를

지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석유 업체들의 순이익이 급증했던 2022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현금 배당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석유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주식시장 최상위에 있던 2011~2014년 전성기 당시보다도 76% 많았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에

너지 부문이 S&P 500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10년 전의 약 14%에 비해 대폭 줄었다. 석유업체들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도 자금을 많이 투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개발 사업을 줄였는데, 이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했지만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의 조치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높은 점에서 보듯 아직 투자자들은

석유업체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큰 확신은 갖지 않고 있다. 석유 산업의 재무 상황은 사이클을 타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다 석유수출기구(OPEC)의 생산량 결정에도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업계에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는 이런 지적에 반박한다. 5대 석유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건설하게 유지되는 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 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d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케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coway

실날의 레이는 이벤트

2024년 1월 27일~2월 26일

혜택 1 프리미엄 제품 2대 구매시

쿠첸 121 IH 압력밥솥 증정

• 렌탈 1대 + 렌탈/재렌탈/일시불 1대 선택 구매시 : CP-6330L, CHP-6330L, CHP-251L, CHP-671L, CHP-5710L, CHP-280L, CHP-620L PLUS AP-1516D, AP-2021A, AP-3018B, BA-13, BAS-22, BB-14BUS, CM-9000
• 사은품은 고객 당 1개 제한 • 혜택 2와 중복 불가



혜택 2 코웨이 전제품 중 2대 구매시

휘슬러 Profi 냄비세트 증정

• 코웨이 전제품(다리 마사지기 & 샤워헤드 제외) 중 2대 구매시 (렌탈, 재렌탈, 일시불)
• 사은품은 고객 당 1개 제한. 지역에 따라 사은품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혜택 1과 중복 불가



혜택 3 청정기 혹은 비데 6년 렌탈시



3개월 렌탈료 FREE

(3월, 4월, 5월)



• 6년 렌탈시 : AP-1018F, AP-1516D, AP-2021A, AP-3018B, BA-13, BAS-22

혜택 4

첫 코웨이 정수기 렌탈시

렌탈료 FREE

6년 렌탈시 : 3개월 Free (3,4,5월)
3년 렌탈시 : 1개월 Free (3월)

• 해당제품 : CP-6330L, CHP-6330L, CHP-251L, CHP-671L, CHP-5710L, CHP-280L, CHP-620L PLUS
• 첫 코웨이 정수기 해당조건*
• 혜택 5와 중복 불가

*첫 코웨이 정수기 해당조건

- 1) 코웨이 정수기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고객, 또는 2)22년 6월 1일 이후에는 코웨이 정수기 제품을 구매하거나 렌탈, 멤버십 이력이 없는 설치처에 한함.
- 3) 신상 재렌탈, 6개월 재접수 주문은 적용 불가
- 4) 동일 설치처 혹은 동일 고객번호에 정수기 주문의 2024년 1월, 2월 해약/주소이전건이 있을 시 적용 불가

혜택 5

CHP-671L 정수기 렌탈 구매시

6개월 렌탈료 FREE

• 6년 렌탈, 재렌탈시 : CHP-671L
• 혜택 4와 중복 불가



혜택 6

P-6320L 정수기 렌탈시

월 렌탈료 할인

약정 등록비 \$100
6년 ~~\$26.99~~ \$23.99

• 6년 렌탈시 : P-6320L
• \$3/월 수준 할인, TAX 제외/자동이체 가격



혜택 7

안마의자 렌탈시

\$300 VISA카드 증정

• 해당제품 : CM-9000

사은품은 조기 품절 시 사전공지없이 다른 사은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판매인에게 문의바랍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디자인은 당사의 지적재산으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DMV지역 코웨이 법인매장



베세토 지하 1층
822 N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센터빌 롯데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H MART
13818 Braddock Rd, Centreville, VA 20121

제품 구입 및 문의는 해당 매장을 방문해주세요



Washington, DC 703-992-0835



Re:BLUETION
깨끗함의 무한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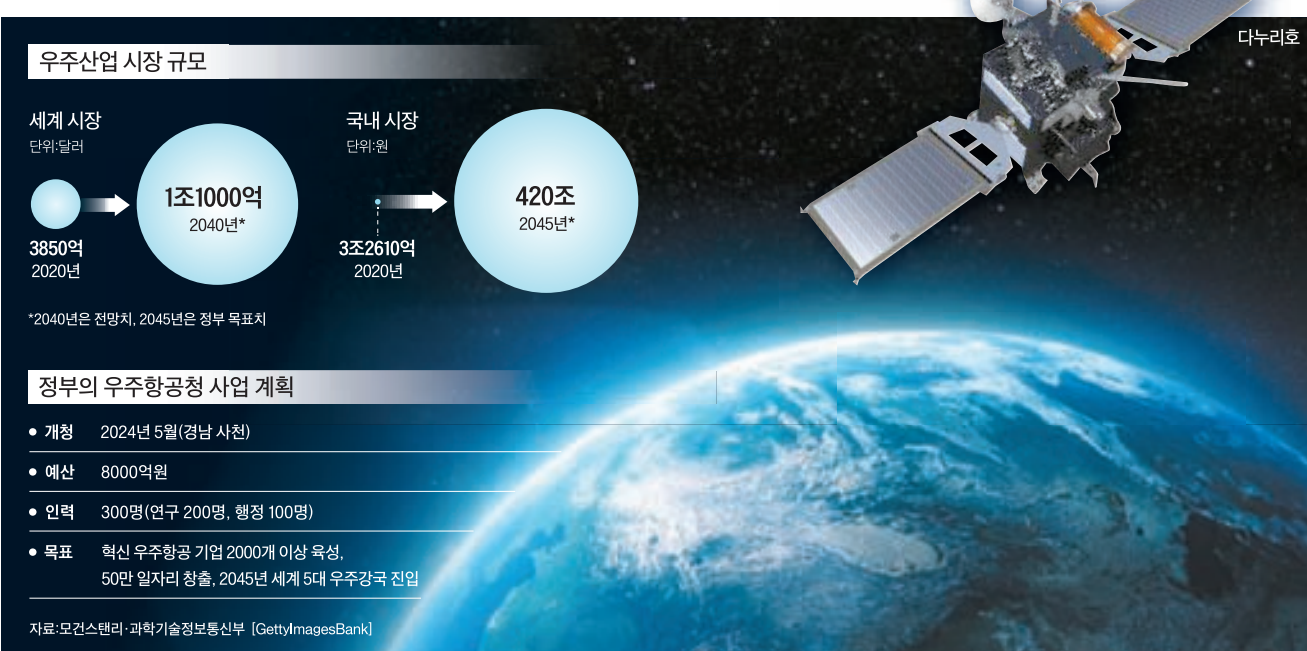
상업위성만 우주청, 군사위성은 국방부... 반쪽 사령탑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됐다. 1958년 창설된 NASA는 비(非)군사적인 우주 개발을 모두 관할하고 종합적인 우주 계획을 추진한다.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는 "경제성이 있는 우주산업과 스페이스X(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같은 선봉장 육성을 위해선 우주항공청은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 기능 단계적으로 우주청에 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는 오는 5월, 장소는 경남 사천이다. 관련 예산은 8000억원, 인력은 300명(연구 200명, 행정 100명) 규모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혁신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 육성 ▶50만 일자리 창출 ▶2045년 국내 우주산업 시장 규모 420조원 달성을 통한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은 (한국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그동안 국내 과학·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우주산업 컨트롤타워가 들어서면 관련 생태계 구축과 기술 경쟁력 제고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민간 주도 우주산업 발전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된 점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방호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 수단에 국한됐던 글로벌 우주산업은 21세기 들어 민간 주도로 성장,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우주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R&D)의 체계화가 시급했는데 우주항공청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우주산업은 외교·안보·국방 등의 분야와도 직결돼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필수다. 그동안 국내 우주산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전략을 마련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국책 연구기관이 R&D에 매진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우주



정부의 우주항공청 사업 계획

- 개청: 2024년 5월(경남 사천)
- 예산: 8000억원
- 인력: 300명(연구 200명, 행정 100명)
- 목표: 혁신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 육성, 50만 일자리 창출,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

자료: 모건스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ttyImagesBank)

경남 사천에 동지 트는 우주청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탐사 꿈 향유연·천문연, 산하기관으로 편입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국방·외교·국토부 우주 관련 사무 우주청으로 업무 이관 제외

내·외국인 불문 '열린 채용' 필요
국내 우주산업 인력 1만명에 불과 미국은 NASA 인력만 1만7000명

하는 국토교통부의 우주 관련 사무는 우주항공청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될 이관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산업뿐 아니라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직접 상황을 조율하면서 우주산업 발전의 난점을 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물음표가 붙는 것이다. 예컨대 우주산업의 핵심 상용 기술인 위성 기술은 국방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이대로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상용 위성 기술은 우주항공청이, 군사 위성 기술은 국방부가 맡는 식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 일관된 정책 추진과 관련 R&D가 어려울 공산이 크다.

외교에서도 NASA 등과의 국제 협력 업무를 우주항공청이 수행해야 하는데, 외교부의 우주 관련 기능 이관이 없다면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국책 연구기관 중에서는 우주 정책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소의 우주항공청 편입이 불발될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자

우주항공청을 유지한 경남도청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23일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외교·국방·국토부의 우주 관련 기능뿐 아니라 STEPI 등 산하기관의 연구 기능 모두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구조로는 우주항공청이 본래 설립 취지답게 우주 분야 R&D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단기적으로 모든 기능을 흡수할 수 없다면(정부) 장기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방 분야의 경우 우주 안보 기능만은 우주항공청이 맡게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직의 이관이나 파견 형태의 인력 교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외교·국방·국토부에서 추후에 이를 요청하면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젊고 유능한 인사를 초대 청장 발탁해야"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당장은 모든 정부 부처와 싱크탱크의 우주 관련 기능 흡수가 어렵더라도,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이관에 나서야 우주항공청이 비로소 종합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국책 연구기관들은 매년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간 잘 해왔던 검증된 분야의 기술 또는 정책 개발에만 관성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에서 기존에 미진했던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려면, 우주항공청에 모든 우주 관련 기능을 모아 자연스럽게 이런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 장면. 다누리호는 2022년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 미 우주군 기지에서 팰컨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명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정부가 계획한 인력 300명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컨트롤타워에 걸맞은 우수 인력으로 이를 채우려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우주산업 분야 인력은 선진국 대비 열악한 육성 환경 탓에 지난해 기준 약 1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주산업 분야 인재 육성에 일찌감치 전념했던 미국은 NASA 소속 인력만 1만7000명이 넘는다. 의명을 원한 한 대학 교수는 "가뜩이나 인력 공급이 부족한데 불확실한 미래를 감수하고 우주항공청에 들어가는 인력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도모라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은 구직자 입장에선 비선호 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과학계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이 같은 우려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장관은 "해외에도 NASA 등에서 근무한 외국인, 또는 한인이면서 이중 국적인 우수 인재가 많다"며 "이들도 많이 채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국내 산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향유연과 천문연 등 국책 연구기관 소속 인력까지 누구나 우주항공청 공채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 관계없이 기존 보수 체계의 150%를 초과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사천의 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청장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우주산업 분야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은 삭제된 바 있다. 일반 연구직엔 외국인을 채용하더라도 청장은 내국인 임명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우주산업의 깜짝 강자로 떠오른 아랍에미리트(UAE)가 2014년 우주청을 만들면서 초대 청장에 30대 여성 과학자(사라 알 아미리)를 임명, 경쟁국 대비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빠르게 우주강국 반열에 오른 것처럼 한국도 젊고 유능한 인사를 초대 우주항공청장으로 발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일각에선 전문성뿐 아니라 정부와의 교류, 내부 조직원 결속 등에 능한 정치력까지 갖춘 인사가 청장이 돼야 첫 출범 조직의 애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창균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모든 계약은 이곳에서

2023 Return

T

A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첸들리 타운홈

\$560,000

방3, 화3.5, 차고1, End Unit
2009년산
사우스라이딩

버크 타운홈

\$549,000

방4, 화3.5, 2 Assigned
뉴키친, 뉴원도우
굿 로케이션

센터빌 싱글홈

\$690,000

방3, 화3.5, 차고2
새지붕, 새HVAC, New Flooring
뒷마당 넓은 집, Fully Fenced

COMING SOON

헤이마켓 싱글홈
방4, 화4.5
3600sf
업그레이드 중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업그레이드
굿 로케이션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골프 라운지



SUPER BOWL LVIII SPECIAL

FEBRUARY 11, 2024 | 5 PM - 10 PM

\$1 WINGS

50% OFF DRAFT, BOTTLE, & CAN BEER

\$5 OFF SO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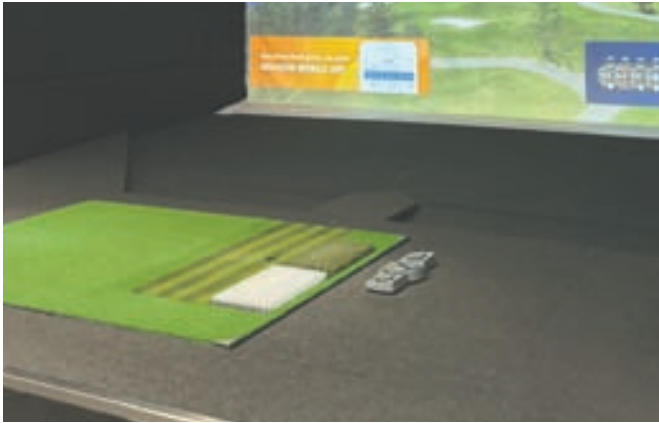
Offer only available at the bar and lounge area

최고의 휴식처이자 문화생활의
멀티스포테인먼트 경험!
바와 라운지 완비!
가족, 친지, 비즈니스 모임에
최적의 장소!
고객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100% 만족을 약속합니다.



NO.1
GOLF LOUNGE

GRAND
NO.1 GOLF LOUNGE
OPENING



Days of week **Open hours**

- SUN** 10 AM - 10 PM
- MON** 10 AM - midnight
- TUE** 10 AM - midnight
- WED** 10 AM - midnight
- THU** 10 AM - midnight
- FRI** 10 AM - 2 AM
- SAT** 10 AM - 2 AM

영업시간은 공휴일 등 조정 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NO.1 GOLF LOUNGE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문의: **571-591-4455**

우리말 바꾸기

귀에 못이 박이나, 박히나?

질리도록 자주 들었다는 뜻으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는 말을 많이 쓴다. 문제가 없는 표현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써도 되는 표현이다. 관용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은 이렇다.

비슷한 표현으로 ‘손에 못이 박이다’가 있다. 여기에서의 ‘못’은 굳은살을 가리킨다. 그래서 ‘못(굳은살)’이 ‘박이다’와 어울려 ‘손에 못이 박이다’ 형태로 쓰인다. 하지만 이 ‘못’은 ‘귀에 못이 박히다’에서 사용되는 ‘못’과는 의미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귀에 못이 박히다’는 표현을 그대로 관용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아무리 자주 듣는 얘기를 나타냈다고 해도 ‘귀에 못이 박혔다’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못’ 역시 쇠가 아니라 굳은살을 나타내는 ‘못’이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자주 듣는 곳에 굳은살이 박이듯 너무 자주 들어 귀에 굳은살이 생길 정도라는 의미이므로 똑같이 ‘귀에 못이 박이다’ 형태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耳(みみ)にたこができる’로, 역시 ‘귀에 못이 박이다’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못’은 쇠못이 아니라 굳은살(たこ)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뉴스 포커스

달라져야 할 ‘시니어’ 개념



김동필 논설실장

‘시니어(senior)’는 주로 일정 연령 이상의 노령 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딱히 ‘몇 살 이상’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다보니 기준도 제각각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가운데 맥도날드, 데니스, 아이옴 등에서 55세 이상이면 시니어 혜택을 주지만, 60세 이상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다.

LA시와 LA카운티도 차이가 있다. LA시는 60세 이상이면 시 소유 골프장의 그린피를 할인해 주는 반면, LA카운티는 65세 이상 부터 할인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니어의 기준은 65세 이상인 듯하다.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5세 부터이기 때문 아닐까 싶다. 그리고 보니 한국에서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도, 복수국적이 허용 되는 연령도 65세 이상이다. 이 정도 연령이면 은퇴 생활이 시작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요즘 ‘시니어 현역’이 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은퇴할 나이에 여전히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분들이다. 70대 중반에 아직도 새벽같이 출근하는 한인 기업인도, 여든 나이에 업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한인 회장님도 이런 분들이다.

그런데 지구촌 주요 국가들은 인구 노령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체 인구 숫자는 정체, 내지 감소하는데 노령 인구 비율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

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센서스 자료를 보면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5800만 명, 전체 인구의 16.8% 가량 된다.

그런데 이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진입 영향이다. 드디어 올해는 65세가 되는 인구가 41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매일 1만1000명이 65세가 된다는 얘기다.

이런 증가 추세는 1962년 생들이 65세가 되는 2027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3년 후에는 미국인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시니어가 된다.

인구 노령화에 대한 우려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비롯된다. 생산활동 참여 인구가 줄어 성장동력은 약해지는 반면, 의료·복지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젊은층의 시니어 인구 부양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성급한 전망인 듯하다. 요즘 시니어들의 모습이 과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변

화하면서 시니어들의 양상도 달라졌다. 과거에 비해 더 오래 일하고 자녀들에 대한 의존도도 줄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20% 가량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율은 3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는 것이다. 더구나 일하는 시니어의 3분의 2는 풀타임 직업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시니어들의 자산 규모도 계속 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소비자 금융 조사에 따르면 65~74세 사이의 중간 순자산 규모는 41만 달러로 조사됐다. 2010년의 28만여 달러에 비해 10여 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시니어 자산 가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다양한 은퇴 투자 플랜 덕이다. 과거 시니어들이 주로 연금에 의존해 생활했다면 지금은 은퇴 투자 상품, 사회보장연금 등 수입원이 다양하다. 그리고 자산과 수입이 늘다 보니 시니어 그룹은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신시장의 등장에 주목하는 이유다.

시니어 층의 부상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의 활동 반경이 과거의 시니어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시니어’의 개념도 달라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시기로 말이다.

네트워킹

명절 선물과 잔소리



이도성 베이징 특파원

수습 기자 시절 이야기다. 퇴근 준비를 하던 선배 한 명이 선물상자를 쥐어줬다. 견과류 세트였다. 호두와 잣, 아몬드 등이 들어있었다. 그제야 설 연휴 하루 전이란 걸 깨달았다.

당시 입사 6개월도 안 된 수습 기자가 받을 선물은 없었다. 선배는 자신 몫의 선물을 내줬던 것이다. 집에 돌아갔더니 어머니가 환히 웃었다. 대학생티를 갖췄은 아들이 명절 선물을 받아온 게 대견하다고 했다. 무심한 표정으로 선물을 건네던 선배의 뜻을 뒤늦게 깨달았다.

10년도 더 지난 선물세트가 생각난 건 요즘 중국 소셜미디어 풍경 때문이다. 춘절(음력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자랑이 한창이다. 어느 회사가 어떤 선물을 쫓는지 소개하는 ‘언박싱’ 게시물이 줄지어 올라왔다.

특히 중국 IT기업들은 경쟁하듯 설 선물 패키지에 공을 들였다. 포털사이트 바이두는 여행용 가방, 인터넷보안업체 360은 캠핑용품,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고급 스피커를 담았다. 대

부분 ‘용의 해’ 의미를 담아 알록달록한 색상의 선물세트를 기획했다. 자신이 받은 선물 사진을 올리고 다른 회사의 선물은 뭔지 묻는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우리 회사 선물만 초라하다”는 한탄도 올라왔다.

그런데, 이런 한탄마저 부러울 사람들이 있다. 선물 자랑도 ‘가진 자들의 경쟁’일 뿐이다. 최근 중국 경제엔 적신호가 켜졌다. 한 축엔 고공행진 중인 청년 실업률이 있다. 관영매체조차 ‘실업대란’이라 표현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중국 청년 실업률은 21.3%

였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 뒤 국가통계국은 어떤 발표도 없이 침묵했다. 그러다 6개월 만인 지난달 기준보다 3분의 2로 줄어든 통계를 내놨다. 새로운 조사 방식을 적용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을 바꾸며 생긴 착시 현상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부모 용돈으로 생활하는 ‘전업 자녀’를 포함하면 잠재실업자가 1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정부 발표의 두 배 규모인 40% 전후라는 주장도 있다.

일가친척 마주할 격정에 한숨만 내쉬는 건 중국 청년뿐만은 아니다. 한 국내 아르바이트 플랫폼이 성인 34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6%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유는 ‘취업 관련 과도한 질문과 잔소리(47.5%)’가 1위로 꼽혔다. 다른 조사에선 취준생 4명 중 1명이 ‘고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잔소리만 잔뜩 들을 바엔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뜻이다. 이번 명절엔 질문보단 응원으로 어색함을 깨보는 건 어떨까.

Advertisement for Michael Kang (마이클 장) with contact information: 410-370-4229, 301-275-1494. Services include Real Estate, Business, and Financing.

Advertisement for Kim Cheol-min (김철민) at Potomac Law Group, PLLC. Services include Immigration and Business/Real Estate. Contact: 703-973-8700.

바디프렌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락 전액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대일 703-354-1515
2층 소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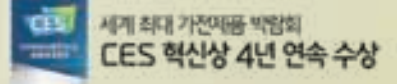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구정맞이 Special SALE



바디프렌드와 함께 10년 더 건강하게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렌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케어워킹 프로그램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쿼다이얼
- 3단계 온열
- 폭신한 에어백
- 손지압 패드
- 강화된 안전센서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자동 체형 인식
- 다리길이 자동 조절

내 집에 **쑥**
내 몸에 **쑥~**



Healthcare Robots FALCON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지금껏 닿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바디프렌드 체험하기 전에 구매 결정하지 마세요!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중영 Saturday+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대표전화 : (703)281-9660

Saturday, February 10,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화폭에 담긴 설빔 입은 아이... 조선을 사랑한 영국 여성화가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엔 '송영달 개인 문고'가 있다. 송영달(90) 전 미국 이스트캐롤라이나대 교수가 기증한 한국 관련 서양 고서(古書) 모음이다. 송 교수는 틈날 때마다 영미권 서점을 다니며 구한말 한반도와 관련된 영어 서적을 수집했다. 40여 년에 걸친 수집 과정에서 송 교수가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된 사람이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1887~1956)다. 20세기 초 일본과 조선을 방문해 작품 활동을 했다.

키스는 금강산부터 한양까지 한반도를 여행하며 조선인의 삶을 화폭에 담아냈다. 3·1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쓰기도 했고, 크리스마스 실을 세 차례 그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를 송 교수가 발굴했다.

캐나다 소재 키스의 먼 친척 집까지 찾아가 모은 책과 작품들은 송 교수의 손을 거쳐 책으로 거듭났다. 지난달 말 출판된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올드 코리아』(한림출판사)다. 2020년 펴낸 한국어판에 이어 이번엔 영어로 출판됐다. 은퇴 후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송 교수를 e메일 등으로 인터뷰했다.

-키스를 발굴한 계기는.
“나는 행정학을 전공하고 가르쳤지만, 20세기 초 한반도 관련 책을 모으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헌책방을 둘러 책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귀중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서양 고서들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웠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했고, 지금도 보관돼 있다. 키스가 쓴 책을 우연히 보고 한국에 대한 애정에 감명받았다. 키스와의 우연한 만남은 은퇴 후 내 삶을 바꿨다.”
송 교수는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송영달 교수가 발굴한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들. 1 구한말 정월 초하루 설빔을 입고 아이들과 광화문 나들이에 나선 양반댁 부인. 2 구한말 혼례 잔치 모습. 3 평양 대동강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과 아이를 업고 가는 부인.
[사진 한림출판사]

‘잊혀진 화가 키스’ 발굴 송영달 교수
“20세기 조선 여행하며 일상 그려
3·1운동 지지하는 글도 남겨
키스의 예리한 눈과 애정에 감사”
송 교수, 40년간 수집한 작품 기증



올드 코리아』 외에 『키스, 동양의 창을 열다』를 한국어로 발간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키스 전시회도 열었다.
-화가로서 키스에 주목할 점은.
“그가 한반도에 처음 온 것은 1919년 이고, 이후 40년까지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한국을 소재로 한 수채화·목판화 등을 90여 점을 남겼다. 우리네 일상을 어느 화가보다 많이 그렸다. 그의 작품을 보면 사실에 충실한 관찰력과 더불어, 조선인을 대하는 다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낸 그의 예리한 눈과 열린 마음, 파스한

애정에 감사하다.”
키스는 당시 한반도 여성의 삶을 많이 그렸다. 혼례를 올리고 피곤한 듯 눈을 감은 듯 앉아있는 신부,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들이를 나선 양반 부인 등 다양한 일상이 화폭에 남아있다.
송 교수는 “키스는 당시의 각계각층,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림을 그렸다”며 “편견 없고 진실한 그림은 키스가 한반도에 대해 품었던 애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 6면 ‘송영달’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Care People Home Health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2/12-2/16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십다 버릴 검 취급... 영화사 최대의 핵무기 조롱



김정의 영화 리뷰

개봉 60주년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3일 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후 역사의 주도권은 더 이상 인류가 아닌, 핵으로 넘어간다. 그들은 신무기가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원자폭탄은 점차 인류를 위협했고, 세상은 지금까지 멸망의 기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에서 전쟁이 중단된 적은 한번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젊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원로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긴다. 그들에게 원자폭탄은 검과 같은 존재이다.

다. 영화의 부제 ‘Or: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bomb’(걱정할 필요 없어. 폭탄 하나만 있으면 돼)은 큐브릭 감독이 인류사에 던진, 영화사상 최대의 조롱이다.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는 허무주의, 절망과 광기에 대한 심화된 고찰이며 전쟁과 정쟁을 유머로 승화한 최고의 영화로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는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로 위기가 고조되던 냉전 시대에 발표됐다. 그러나 핵에 관한 인류의 우려는 60년이 지났어도 본질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영화에 담겨 있는 메시지와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영화의 모든 설정은 큐브릭의 우스꽝스러운 상상에서 시작한다.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기반하지만 그 설정을 완전히 뒤엎어버린다.

인류는 언제부터인가 폭격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냉전시대 미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커티스 르메이는 “We’re going to bomb them into the Stone Age”(폭격으로 석기시대로 되돌려 보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사일과 폭탄이 눈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고 믿는 사람은 르메이 뿐만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 최고의 블랙코미디로 평가되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는 AFI 선정 최고의 미국 영화 목록에서 26위에 올랐고 1989년 연방의회 도서관에 등재된 최초의 25개 영화 중 하나다. [Columbia Pictures]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는 1965년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각색상, 최우수 남우주연상 등 4개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 BAFTA 영화상에는 7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최우수영화상, 최우수 영국 영화상을 수상했다. [Columbia Pictures]

책임감 없는 정치인·폭격 만능주의·광기 풍자
큐브릭의 경고 지금도 유효... 셀러스 연기 압권

올해로 개봉 60주년을 맞은 스탠리 큐브릭의 마스터피스 ‘닥터 스트레인지러브’(Dr. Strangelove, or: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Bomb)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연신 검을 씹고 있다. 검의 역할은 불안을 완화하는 일이다. 단물이 빠지면 뱀이 버리면 그만이다. 검은 일회성이라는 본질에 반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고 있을 때, 핵무기를 검 정도의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던 늙은이들이 모여 앉아 인류 평화를 논한 결과다.

큐브릭 감독은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나면 뱀이 버리는 책임감 없는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의 도구로 검을 사용했

어 아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반공주의자 잭 D. 리퍼 장군은 전형적인 폭격 만능주의자다. 그는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불소로 미국 남성들의 힘을 빼고 있기 때문이라 믿는다. 리퍼 장군이 난사하는 기관총은 남성의 성기를 의미한다. 증류수와 빗물만 받아 마시는 그는 마침내 소련을 응징하기 위해 핵폭탄을 실은 폭격기를 발진한다.

리퍼 장군의 망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치의 게르만 우월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에 가서야 등장하는 나치 독일의 망명 과학자 스트레인지러브 박사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남성을 중심으로 국가를 세우고 남녀 비율은 1 대 1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트레인지러브 박사의 이러한 제안은 나치의 ‘히틀러 유겐트’를 연상케 한다. 나치는 제1제국을 신성로마, 제2제국을 독일제국으로 보고, 나치 지배의 제3제국 수립을 선포했다. 유소년과 청소년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엘리트들을 양성한다는 ‘인류 계획’이었다.

큐브릭은 영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본질적으로 나치, 소련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기득권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희생되는지에

관심이 없다. 그저 검처럼 씹고 뱉으면 그만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인들은 대화를 시도하지만 중국에는 실패로 돌아간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으로는 절대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 머플리 대통령이 전쟁 상황실에서 서로 싸우는 참모들에게 “Gentlemen, you can’t fight in here. This is the War Room!”이라는 대사를 던지는 장면은 상징하는 바 크다.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는 전쟁에서 아이러니를 찾고 비참한 코미디로 마무리된다. 영화가 최고의 정치 풍자극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터 셀러스라는 위대한 천재 배

우의 연기 때문이다. 출세작 ‘핑크 팬더’와 1인 다역으로 유명한 그는 3명의 중심 캐릭터 라이오넬 맨드레이크 영국군 장교, 머킨 머플리 미국 대통령 그리고 스트레인지 박사를, 돌아가면서 시니컬한 익살과 씩씩함으로 연기해낸다.

영화는 핵이 폭발하는 몽타주와 함께 노래 ‘We’ll meet again’으로 끝난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를 우선시하는 자들이 전쟁 상황실에 모여 앉아 있는 한 전쟁은 반복될 것이다. 3차 대전 이후 인류는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60년 전 큐브릭이 경고한 인류의 섬뜩한 미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정 영화평론가**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SOLD</p> <p>Columbia \$650,000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0.6에이커 지하출입구 별도</p>	<p>SOLD</p> <p>Clarksville \$470,000 타운홈, 방2, 화2, 1,500sqft</p>	<p>COMING SOON</p> <p>Millersville \$559,000 싱글홈, 방3, 화4, 차고2</p>	<p>SOLD</p> <p>Laurel \$547,000 2023 New Home, 방3, 화2.5, 차고2</p>	<p>SOLD</p> <p>Hanover \$535,000 타운홈, 2016 건축, 즉시 입주 가능 방4, 화3.5, 차고2, 100번근처</p>
<p>SOLD</p> <p>Gaithersburg. \$525,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UNDER CONTRACT</p> <p>Hanover \$490,000 타운홈, 방4, 화3.5, 차고1</p>	<p>UNDER CONTRACT</p> <p>Odenton \$489,000 싱글홈, 방3, 화2, 즉시 입주 가능</p>	<p>UNDER CONTRACT</p> <p>Frederick \$386,000 타운홈, 방3, 화3</p>	<p>COMING SOON</p> <p>Cockeysville 싱글홈, 방4, 화3, 내부수리중</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COMING SOON</p> <p>Elkridge 월 \$2,800 타운홈 방4, 화장실3, 차고1</p>	<p>RENTED</p> <p>Baltimore 월 \$2,400 타운홈 방4, 화장실4</p>	<p>RENTED</p> <p>Germantown 월 \$2,400 타운홈 방3, 화4</p>	<p>RENTED</p> <p>Glen Burnie 월 \$1,850 콘도 방3, 화2, Top Floor</p>	<p>COMING SOON</p> <p>Hanove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RENTED</p> <p>Odenton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p>
--	---	--	---	---	---

“사법농단은 큰 오해… 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지난달 26일 법조계에서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소위 ‘사법농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1810일 동안 290번의 기일이 열린 끝에 마무리됐다.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 판사 14명 기소, 수사기록 17만 페이지 등 검찰이 남긴 화려한 기록들과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죄(형법 123조)가 적용된 47개 혐의 전부가 무죄라는 결과는 큰 대조를 이뤘지만 정치권은 조용했다.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부탁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법원 좌파들이 추동한 일이지만, 이들과 손잡고 사법부 권력 교체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수사과 기소를 몰아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콜라보가 아니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의 내부고발자임을 자처해 금배지를 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는 등 연일 분노를 내뿜고 있지만 그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법조인을 찾기 쉽지 않다.

선고 직후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법원을 빠져나간 양 전 대법원장의 소회가 가장 궁금했다. 아직 언론과의 접촉을 저어하는 그를 대신해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찾아갔다. 마침 목차 등을 제외하고 284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받아 든 날이었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기소한 2017년부터 급작스레 펼쳐진 ‘직권남용 범람의 시대’의 최전선에 있었다. 김 전 비서실장에 이어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의 장식병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를 맡았고, 2019년 1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 뛰어들었다. 이들의 핵심 혐의가 모두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분석에 놀라
-선고 직후 “당연한 귀결”이라고 한 양 전 대법원장이 남긴 소회가 더 있다.

“아주 놀라웠다고 했다. 최근까지도 재판부가 흑시 일선 법원과 다른 법원

행정처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조금 우려했는데, 범죄 구성요건별로 아주 분석적이고 명쾌한 판단을 내리는 걸 보고 놀랐다는 취지였다.”

-5년간의 1심, 변호사에게 보통 일이 아니다.

“힘들었다. 2021년 2월 어느날 법정에서 노트북에 뜬 뉴스 알림 메시지에서 ‘양승태 재판부 바뀐다’는 제목을 보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차를 몰고 퇴근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 수능 공부에 2~3년 ‘올인’해 왔는데 시험 일주일 전 느닷없이 ‘올해 수는 없다, 내년에 본대’라고 통보받은 고등학생의 기분이 그랬을까 싶다. 검찰의 여론전 때문에 판사도 부정적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뒤집기 위해 애써 끌어낸 증인들의 어조와 표정 그리고 몸짓이 모두 신기루처럼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판결을 따라가니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별로 OX를 체크할 수 있더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 행정처 심의관 등의 대부분 실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거다. 통상은 그렇게 결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요건들의 충족 여부는 판결문에 안 쓰는데 이번 재판부는 각각의 요건들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모두 제시했다. 2심이 결론을 뒤집으려면 그 모든 판단들을 반박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형법전에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표현돼 있다. 어떤 일을 지시한 자와 그 일을 실행한 자로 구분되는 수직적 관계의 두 명 이상이 공무원의 존재해야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된다. ①지시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특정한 행위를 시킬만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어야 하고 ②그 지시로 인해 공무원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당했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③중간에 끼는 공무원이 여럿이라면 그들 사이에 적극 공모가 있었는지도 재판에선 중요한 쟁점이다. 재판부(부장판사 이종민)는 47개 혐의에 채워진 사실관계들이 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일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일군의 좌파 판사들의 오해”라고 말했다. 박종근 기자

이 판단했다.

검찰, 2심서 47개 혐의 반박 쉽지 않을 것
-실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그렇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행정의 속성에 반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행정 작용이 필요한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법에 정하고 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런 관점에서 법원행정처의 역할·기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시행령, 내부 지침과 법적 윤리 등을 짚어내거나 당시 있었던 일들이 이를 위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2017년 이후 한껏 넓어졌던 직권남용의 그물코가 다시 좁혀진 건가.

“원래대로 돌아온 거다. 박근혜 정부 말기, 소위 ‘촛불혁명’의 시대를 맞으면서 판사들이 살벌하다고 느낄 분위기가 됐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A지만 그랬다가는 신상이 털리고 문자 폭탄 맞고,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 위촉돼 B

라고 한 판결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유죄판결이 늘었지만 법리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2020년 김기춘 전원합의체(전합)는 어떻게 보나.

“전합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무죄였던 어떤 유의 행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죄가 된다는 건 그만큼 구성 요건과 그 해석이 추상적이고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다. 그런데 전합은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다. 다수 의견은 논리가 없다. 지금의 판례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거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항소 또는 상고가 돼서 대법원까지 가면 전합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검찰은 2일 항소한다고 밝혔다.)

-김기춘 사건에선 특정 성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차이가 있다.

“이 사건에도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에게 현재의 기밀을 누설하게 했다는 부분은 비슷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말은 ‘파견 법관으로 가서 법원과 협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에 무슨 일이 생기면 법원도 알 수 있게 해달라’

는 정도였다. 파견 법관의 소임을 다하라는 덕담 차원이다. 과연 이 말을 ‘현재의 기밀까지 불법적으로 빼오라’는 지시로 볼 수 있을까. 김 전 실장도 마찬가지다. ‘반헌법적 세력, 중복 좌파를 국가가 지원하는 건 년센스다’ 정도의 말을 ‘문재인 지지한 문화예술인은 지원에서 배제하라’는 말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위계 서열을 타고 말이 내려가는 과정을 면밀히 보면 위법의 증표를 띄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법적 책임의 연쇄를 끊어야 한다.”

-다른 이유로도 다 무죄가 났지만 공모관계 부인에 상당히 신경썼다. 사법부의 수장이 다 ‘몰랐다’도 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 보였다.

“그 점은 양 대법원장도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러 번 괴로움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소된 행위는 대부분 법원행정처의 일상적인 사법행정업무이고 그러한 업무처리에 대법원장이 일일이 지시 관여하지 않는다.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팩트 그대로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고소·고발 등을 통해 감·경에 접수되는 직권남용 사건 발생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78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304건이 됐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기소가 있었던 2017년을 기점으로 배증한다. 2016년에는 992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1835건이었다. 감·경이 직권남용죄를 각종 행정 영역에 널리 적용하면서 공직 사회 전반이 움츠러들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그런 현상이 사법행정에선 극히 심각하다.

-지나고 보니 ‘사법농단’의 실체는 뭐였다고 생각되나.

“오해다. 사법행정 경험이 없는 일군의 좌파 판사들의 거대한 오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실제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들어달라’ 했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하길래 ‘연구회가 만든 문서에 계속 탄압을 받아왔다는 얘기를 왜 썼나’ 물었다. 돌아온 답은 ‘느낌이죠’였다. 상고법원 추진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 도입도 목적은 같다. 사법부의 생명인 국민의 신뢰 유지. 임장혁 기자

▶ 6면 ‘이상원’으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영화 '소풍' 주연 김영옥·나문희
1961년 MBC 성우 1기로 만나
“배고픈 시절 같이 연기한 동지”
파킨슨병 등 나이듦 담긴 영화
“100세를 살아도 건강 제일 중요”

“100세 시대라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돈·자식·남편이 있어도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을 때의 불행은 대처할 길이 없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닌데 의료행위로 끌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김영옥)

“아픈 몸으로 한없이 누워있을 때가 정말 지옥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회복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병원에서 연명 치료 하지 않고) 지옥에서 해방되면 좋겠습니다.”(나문희)

최고령 현역배우 김영옥(86)과 80대 최고 흥행배우 나문희(82)는 불필요한 연명 치료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실제 63년 지기 친구인 두 사람은 노년의 우정과 나이 들을 그린 영화 '소풍'(감독 김용균)에서 주연을 맡았다. 영화 개봉 일인 7일 서울 삼청동에서 이들을 만났다.

'수상한 그녀'(2014), '아이 캔 스피크'(2017) 등 출연 영화의 총 관객 수가 4124만명에 달하는 나문희는 18년 전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MBC) 속 명장면 "호박 고구마"가 MZ세대에게 사랑받는 '현역 스타'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021), 애플TV+ '파친코'(2022) 등 글로벌 OTT 시리즈의 '신 스타'로 부상한 김영옥과는 연예계 소문난 절친 사이다. JTBC 예능 '뜨거운 씨어즈'(2022)의 실버 합창단을 함께하기도 했다.

'소풍'에선 사돈이자 고향 친구인 은심(나문희)과 금순(김영옥)이 됐다. 사업에 실패한 아들 내외가 은심이 사는 집을 팔자며 들이닥친 날, 연락도 없이 금순이 찾아온다. 소녀 때로 돌아간 듯 무인 주문키 조작이 서툰 걸 놀려대고, 햄버거를 먹고, 즉석 사진을 찍던 두 사람은 60년 만에 함께 소풍 가듯 고향길에 오른다. 경남 남해로. 학창 시절 은심을 짝사랑한 태호(박근형)는 막걸리 장인이 되어 그곳을 지



60년지기 금순·은심의 '소풍' “우리 얘기 담듯이 찍었다”



배우 김영옥(왼쪽부터)·나문희가 영화 '소풍'에서 생의 마지막을 함께 바라보는 고향 친구를 연기했다. 실제 60년 넘게 친구로 지낸 두 배우가 경남 남해 바다 풍광 속에 “다시 태어나도 친구할래. 사랑한다” 고백하는 애뜻한 우정 이야기를 그려냈다.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

키고 있다. 연기 경력도 포함 195년(나문희 63년, 김영옥 67년, 박근형 65년)인 배우들은 “연기라기보다는 카메라에 나

해지면서 부쩍 돌아가신 엄마가 눈에 어른댄다. 그런 은심을 걱정하는 금순도 허리 통증이 악화해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어진 처지다. 지난해 12월 남편과 사별한 나문희는 “연기는 사실적인 게 중요하다. 나한테 닮은 것을 과감하게,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했다. 김영옥은 “노인이 쓰러지면 가정에서 씻기고 먹이고 대소변 받아내던 시대도 이전 지났다.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걸 '소풍'을 통해 더 느꼈다”고 말했다.

'소풍'은 '와니와 준하'(2001), '더 웹툰: 예고살인'(2013) 등을 만든 김용균 감독이 연출했다. 나문희의 20년 지기 매니저의 아내인 조현미 작가의 각본을 토대로 했다. 김영옥은 나문희가 직접 섭외했다.

두 사람은 1961년 MBC 성우극회 1기로 만났다. 김영옥이 '마장가' '로봇 태권브이' 등 만화영화 소년 역, 나문희는 배우 소피아 로렌, 메릴린 먼로 등 외화 데빙을 도맡았다. 그때부터 중년 이후 연기자로 전성기를 맞기까지, 두 사람이 평생 쌓아온 우정은 극중 두 친구의 그것과 닮았다. 나문희는 “배고픈 시절 같이 연기했다. 인생 공부를 했다”며 “김영옥 씨하고 나는 친해도 조심하고 경유를 지킨다. 필요할 땐 꼭 있어 준다”고 돈독한 관계의 비결을 밝혔다.

'소풍'과 같은 날 윤여정 주연 영화 '도그 데이즈'도 개봉했다. 앞서 윤여정은 언론 인터뷰에서 80대 라이벌들을 받기며 김영옥이 '롤모델'이라 고백했다. 김영옥은 “그 대배우가 무슨 나를 롤모델”이라며 “황감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 “못하겠다 하다가도 나를 믿고 대본을 주면 ‘미친 사람’처럼 내가 해야겠다고 욕심을 부린다”며 “연기는 할 때마다 신들린 듯 인물에 빠져서 한다. 행복한 고생”이라고 말했다.

나문희는 “소풍은 노인네가 주인공이지만, 어느 세대도 소홀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철이 덜 든 사람이 보면, 인생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알 수 있다. 영화를 보면 더 많이 느끼고 (삶에 대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문희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	--------------------------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579야드’ 세계 최고 장타 괴물 “깨진 드라이버 헤드만 1000개”

롱드라이브 월드 챔피언십에서 세 차례 우승한 카일 버크셔는 압도적인 장타 비결에 대해 “드라이버를 휘두를 때 가슴과 어깨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코브라하우스에서 드라이버 스윙 시범을 보이는 버크셔. 전민규 기자

몸도 풀지 않고 가볍게 푼 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볼 스피드가 시속 209.6마일(약 338km)이 나왔다. 아마추어가 쓰는 일반 드라이버로, 평소 쓰던 롱티가 아닌 미들 티 위에 골프공을 올려놓고 친 결과가 그랬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코브라 하우스에서 만난 세계 최고의 장타 선수 카일 버크셔(28·미국)가 주인공이다. 아마추어 남성 골퍼의 볼 스피드는 대략 130~140마일이다.

버크셔는 역대 최고의 볼 스피드(시속 241마일, 약 388km)와 최장 거리(579.6야드, 524.5m)를 기록한 골퍼다. 메이저 장타 대회인 롱드라이브 월드 챔피언십에서 2019년과 2021년, 2023년 챔피언을 차지했다. ‘헐크’ 브라이언 디쇼보에게 한 수 가르쳐 준 선생님이기도 하다.

버크셔의 키는 1m88cm. 넓은 어깨와 우람한 근육이 돋보였다. 6세 때 이미

롱드라이브 챔피언 카일 버크셔
볼 스피드 시속 388km 범접 불가
1m88cm 큰 키에 우람한 근육 갖춰

250야드를 날렸다. 야구 선수로 뛰던 14세 때 엔 시속 80마일(약 129km)대의 공을 던졌다. 그는 몸은 물론 마음과 머리로 볼을 친다고 했다. 기자가 질문하면 대부분 다시 물어봤다. 질문을 두 번 듣고서야 대답을 했다. 그는 청력이 좋지 않다. 선천적으로 듣는 능력이 떨어져 청력이 일반인의 50%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는 부족한 청력이 장타로 성공한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버크셔는 “어떤 사람은 많은 장점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장에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가진 걸 최적화·최대화해 가능한 최고의 삶을 살면 된다. 나는 입술 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

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배웠다. 내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 내가 하는 일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다.

버크셔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그는 “장애가 초능력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청력이 좋지 않은 대신 손 감각이 발달했다. 그래서 볼을 헤드 페이스 가운데에 맞출 수 있다. 고막에서 끊임없이 소음이 울리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이 훨씬 더 평화롭다. 장타 대회에선 야유도 나오는데 그런 소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버크셔는 뒷바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뒷바람은 너무 단순해 공기 역학을 잘 아는 자신의 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뒷바람이 시속 10~15마일 정도 불면 로프트 7~8도의 드라이버로 3000rpm으로 회전을 걸어 공을 높이 띄운다. 비슷한 속도의 맞바람

이 불면 1~2도 로프트의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rpm 1500 정도의 백스핀으로 높이는 30m가 넘지 않도록 낮게 깔아서 친다”고 했다.

버크셔는 또 “30년 정도 드라이버를 휘두르면 헤드가 깨진다. 지금까지 1000개 정도의 헤드를 썼다. 대회 때마다 드라이버 30여개를 가지고 나간다. 대회당 8~10개 정도의 헤드가 깨지는 데 날씨에 따라 사양이 다른 헤드를 쓰기 때문에 다른 선수보다 많은 헤드를 준비한다”고 했다.

롱드라이브 월드 챔피언십에서 4차례 우승한 전설적인 선수 제이슨 주백은 “버크셔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장거리의 드라이브샷을 기록했다. 폭풍 같은 힘으로 시속 230마일이 넘는 볼 스피드를 낸다. 그는 장타 선수들을 스피드 경주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했다.

2년 전부터 그의 볼 스피드가 눈에

띄게 늘었다. 버크셔는 “장타를 날리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다가 1년 만에 깨닫게 됐다. 2주 만에 볼 스피드가 시속 236마일에서 239마일로 늘더니 그 이후엔 241마일을 기록했다. 장타 대회엔 나온 다른 선수들도 내가 쓰는 방법으로 스윙하면서 스피드가 늘었다”고 말했다.

장타 선수들에게 비결을 물으면 대부분 공을 세게 치라고 이야기한다. 버크셔는 “백스윙을 할 때 가슴과 어깨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스윙의 틀이 잡혀 있는 골퍼라면 간단한 동작 변화로 시속 5마일 정도의 스피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장타 비법은 7일 발간하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The JoongAng Plus의 ‘골프인사이드’를 통해 공개한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 1면 ‘송영달’에서 이어집니다

이어 “키스는 여덟 가든 그 장소와 상황을 느긋하게 관찰하고, 분위기를 흡수한 뒤에야 그림을 그리곤 했다”며 “그가 활약했던 당시엔 서양 여성이 캔버스를 펴고 그림을 그리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송 교수가 특히 아끼는 키스의 작품은 그가 이순신 장군 초상화라고 추정하는 그림이다. 송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라는 증거가 명시적 기록으로 남은 것은 없지만, 키스가 그린 남성 초상화 중 특히 무인 품모가 짙고, 거북선까지 배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맞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그림을 통영시 박물관에 기증했다. 송 교수는 “(미국에 보관 중인) 나의 수집품이 한국으로 돌아가 사회의 문화적 유산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3면 ‘이상원’에서 이어집니다

막말이나 정치적 인사처럼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판결이 아닌 집단행동이나 대외적 의사 표출로 법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건 법원의 여느 수뇌부도 다 같았다. 사법부의 신뢰에 위협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생각.”

- 지금도 법관장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괴리는 상당하다.
“사법 행정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이 법

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 일선 법관, 검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더라. ‘법원이 주는 예산 받아서 재판하면 되지 왜 로비 집단처럼 국회에 와서 제노나 예산을 설명하고 다니냐’는 게 검사들의 인식이다. 일선 판사들은 행정처 판사들과 검사들 사이 어딘가에 있다. 예를 들어 희생자가 많은 이태원 참사 재판을 집중 심리해 빨리 끝내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피고인들이 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 전에, 그렇게 하려면 수석부장이나 법원장이 다른 재판부 판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반 사건들을 나눠주고 해당 재판부는 그 사건에만 집중하게 해줘야 한다.

그런 것도 검찰이 볼 땐 위법한 재판 관여일 수 있다. 그걸 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논란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가장 자책하는 대목도 여러 법관들의 오해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통과 설득으로 이를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기능 부전에 빠진 사법부가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선 사법행정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 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결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이어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0 ~ 80대 남성도 20대 초입의 건강한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69 전문가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오먼센스 오르가즘 젤™』 \$58 (100여회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이므로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애액과 흡사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남녀 모두에게 미칠 만큼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아들아들하고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남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콧물만큼 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는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주고, 단련시켜주는 천연 옥 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즘 장애 4주 만에 완성, 질 괄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O 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톰한 링 테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O 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달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쩡쨍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멧돼지 남성들의 성생활 필수품 오리지널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반 영구적으로 사용) 말총처럼 까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했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같은 수는 없습니다.

왜 비키리 부동산인가? 왜 약착같은 부동산인가?

- 1 17년 경력의 주택 관리 능력과 16년 연속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탑에이전트, 경험과 부동산 지식을 갖춘 브로커, 비키리입니다.
- 2 매년 변경되는 부동산 법, 버지니아, 매릴랜드, 디씨 혹은 각 카운티 별
준수해야하는 부동산 수칙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펫 디파짓: 돌려줘야 하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Non refundable pet deposit 은 불법입니다.
예) 브로커가 아닌 에이전트가 임대주택관리 해줄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관리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예) 디파짓은 2개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스모크디텍터: 각방마다 각 층마다.
지하실과 주방 이산화탄소 & amp: 스모크디텍터 설치
- 3 고객의 이익을 최 우선시하며 계약시 계약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믿을만한 부동산이 필요하신가요?
부동산의 관한 어떠한 질문이라도 비키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2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직원 구함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혜택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 풀/파트타임 가능
- ▶ 영어 가능하신 분
- ▶ 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환영
-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f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닛의 성능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 주방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핫딜의 톡큰 세일혜택! 이번달에도 받아주세요~
2월의 핫딜세일
 H O T D E A L S U P E R S A L E



aerosilver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일월 전자파 ZERO, 효율적인 분리난방, 7중 안전장치
 3세대 카본(탄소)열선으로 5분 안에 전체를 따뜻하게!
ILWOUL 에어로실버 탄소매트

Single (71x35.4") \$149 Double (71x55.1") \$179



ARTISAN BAMBOO SALT
 도해 용융죽염

Kpurity
 Purple
 Bamboo Salt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신제품 런칭기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건강에 효과
 무형문화유산 한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도해 용융 자죽염 분말 & 고체

45g \$19.46 240g \$89.96 1kg \$284.96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조리용 온도계 무료 증정
 Meat Thermometer

조리용 온도계 무료 증정! 연기 & 냄새 잡는 스마트그릴
 고기/생선 조리시의 연기와 냄새를 팬으로 흡입
ANPANG WIDE 전기 무연 그릴

와이드그릴 세로11.7inch x 가로19.3inch ~~\$269~~ \$149



덕화명란

핫딜 입점기념
 고급 에코백 증정

무료
배송
Free Shipping

JB튜브 2개+그때그대로 2개+백명란 2개+숙성고 2개
 400년 한반도 명란의 역사를 이어가는 덕화명란
명장의 레시피 덕화명란 실속형 패키지

덕화명란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실속형 패키지 \$103.92



무료
배송
Free Shipping

By Make Up Artist *지혜민*

타고난 결을 빛내는 스킨누더쿠션으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모이스처 핏 텍스처, 클리어 커버링, 내추럴 글로우 & 래스팅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리필 포함 (7가지 쉐이드) 미백, 주름개선 효과 \$3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오랜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결정체, **광동우황청심원**
 동의보감에도 수록된 천년 전통의 우황청심원
광동 우황청심원 현탁액 or 환

10환(세트) \$89.99 10병(세트) \$79.99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홀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기타지역

하숙·렌트 구인

고급 노인아파트(62세+)
 상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방고환비
 Income Limit (섹션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스시맨/주방국
 숙식제공 조지아주지역
 (646)229-2708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askusa@koreadaily.com 02-0452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QR Code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Partial & Denture
 풀타임, 초보자 환영
 N.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항흥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산삼음욕단 도인력사당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부에나파크 천종산삼원 **구정맞이 특별세일**

천종산삼
 소중한 분께 '명품산삼'을 선물하세요
 산삼에 대한 궁금증을 "산삼전문가"가 해결해 드립니다

명품 생산삼 최저가 세일
특별세일!
 \$500 두 박스 구입시
 \$300 한 박스 공짜!!!
 \$200 (선착순 Only)
 \$100

최상급 명품 생산삼 세일(선착순) \$2500 → \$1500

상담문의 **213 382 9191 | 562 400 0072** 7342 Orangethorpe Ave. #A-102 Buena Park, CA 90621 **천종산삼원**
 정성과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 온열매트 중 일월만 인증 **UL®** 찜질방 효과 탄소열선 원적외선 방출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극 탄소 열선 물세탁 가능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 린 \$379** **트윈 \$229 | 린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 더블 \$299** **싱글 \$169 |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 더블 \$359** **싱글 \$219 |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 대형 \$465** **중형 \$335 |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 린 \$419** **트윈 \$299 | 린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695,000

Costco 동네



1 Day Contract

독점 2019년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Fredericksburg \$395,900

새단지, 방3, 화장실3½



독점 밝고 예쁜 콘도

Manassas \$219,900

End Unit, 세탁기·건조기 있음, Costco 가까움



SOLD

독점 리모델한 밝고 예쁜 콘도

Manassas \$295,000

방2, 화장실2, Costco 건너편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le Broker 세리 리
703.244.6526